

PB-035

충남1호와 수집 유전자원과의 교잡 후대에서 관상용 벼 선발

정종태^{1*}, 최현구¹, 윤여태¹, 이동재¹, 박인희¹

Chong Tae Chung^{1*}, Hyun Gu Choi¹, Yo Tai Yun¹, Dong Jae Lee¹, In Hee Park¹

¹충남농업기술원 작물연구과

¹Crop Research Division, Chung Nam Agricultural Research & Extension Services 32418, Korea

[서론]

관상용벼는 벼 식물체에 다양한 색깔이나 특이한 형태를 가진 벼로서 관상적인 가치가 있는 벼를 말한다. 이 벼들은 눈에 그림이나 글씨를 쓰는데 이용할 수 있으며 화단조성이나 화분에 옮겨 경관을 조성하거나 감상하는데 이용할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현재까지 관상용벼 품종을 육성한 예가 없으며 기존에 이용되고 있는 자원(자도, 적도, 황도 등)들은 출처가 불분명한 상태로 이용하고 있는 실정에 있다. 최근에 농촌관광이나 치유농업이 활성화되고 있는데, 다양한 종류의 관상용 벼를 개발하여 이용한다면 논에서 경관적 가치를 높이는 소재로서 활용성이 기대된다.

[재료 및 방법]

본 재료는 충청남도농업기술원에서 관상용으로 육성한 충남1호와 Padi Arong 1 Mardi NO. 4378(IT 226944)과의 교잡 후대에서 선발하였다. 충남1호는 간장이 48cm로 매우 작으면서 이삭색깔은 흑자색이며 Padi Arong 1 Mardi NO. 4378은 장간이며 분얼경에 흰 줄무늬가 있으며 출수기에 밝은 자색의 이삭을 가졌다. 2013년도 하계에 충남1호와 Padi Arong 1 Mardi NO. 4378을 상호교배하여 그 후대에서 다양한 색깔을 가지는 개체들을 선발하였다.

[결과 및 고찰]

충남1호와 Padi Arong 1 Mardi NO. 4378과의 교잡 후대에서는 다양한 잎색, 분얼경색, 이삭색을 가지는 개체들이 분리되었다. 육묘초기에 일부 엽록소를 형성하지 못하는 개체들이 다수 발생하여 고사되었다. 잎의 색깔은 짙은 자색에서 녹색까지 다양한 색깔이 분리되었다. 분얼경의 색깔은 흰색에서 분홍, 선홍색으로 분리를 하였다. 분얼경의 잎 및 분얼의 잎 일부는 흰색, 분홍색, 선홍색 등의 줄무늬를 가졌다. 출수기의 이삭색은 흰색, 분홍색, 선홍색, 붉은색, 흑자색 등 다양하게 분리되었다.

*주저자: Tel. 041-635-6050, E-mail, chts6991@korea.kr